

# V. 우리의 진출확대 방안

## 1. 양국간 교역 및 투자 현황

### 가. 교역현황

#### (1) 연도별 교역현황

〈표 V-1〉

연도별 한-칠레 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수출	수입	교역량	무역수지
2001	573	696	1,269	-124
2002	454	754	1,208	-300
2003	517	1,058	1,575	-541
2004 (FTA 발효)	708	1,934	2,642	-1,225
2005	1,151	2,279	3,430	-1,128
2006	1,566	3,813	5,379	-2,247
2007	3,115	4,184	7,299	-1,069
2008	3,032	4,127	7,159	-1,096
2009 (1월~8월)	1,256	1,903	3,159	-647

자료 : KOTIS

□ 2004년 양국간 FTA 발효를 기점으로 교역량이 큰 폭으로 성장

- 칠레는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 상대국으로,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협상을 시작하여,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되었음.
- FTA 체결 이전 양국간의 교역량은 10억 달러 대 수준이었으나, 2004년에는 20억 달러를 돌파, 전년대비 67.7%의 높은 성장을 보임.
- 2005~06년에도 양국간 교역량은 각각 전년 대비 29.8%, 56.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5년 30억 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2006년 약 54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확고한 교역파트너로서의 위치를 자리매김함.
- 특히, 2007년에는 약 73억 달러의 기록적인 교역이 이루어짐. 전체 수출이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한 약 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수입도 약 4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 증가함.
  - 이는 석유제품 수출(18억 달러, 267%)의 대폭적인 증가에 기인함.
  - 또한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입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동광 및 동제품의 수입 규모가 30억 달러에 이르고 제지원료 및 기타금속광물의 수입도 각각 76%, 124% 증가한데 힘입음.
- 2008년에는 수입과 수출 모두 소폭 감소하면서 교역량이 축소되었음. 한편, 칠레는 2008년 중남미 국가 중 우리나라의 수입대상국 1위의 자리에 있었으나, 2009년에는 브라질에 밀려 2위를 기록하고 있음. 수출대상국 순위로는 전년과 동일하게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에 이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전체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대상국 35위, 수입대상국 25위를 차지하고 있음.

## □ FTA 체결 이후 상품수지 적자폭 더욱 증가

- 한국은 칠레와의 교역에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왔는데 FTA 체결 이후 무역적자폭이 더욱 확대됨.
  - 칠레와의 FTA 발효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대 칠레 상품수지 적자폭은 1~5억 달러 수준에서 유지되었으나, 발효 이후 10억 달러 대로 증가
- 특히, 2006년에는 동광 및 동제품의 수입액이 각각 108% 86%의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폭이 23억 달러까지 확대됨.
- 2007년에는 석유제품 및 자동차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수출증가폭이 수입증가폭을 상회하면서 상품수지 적자폭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10억 달러대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2008년에도 유사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 2009년 교역량 감소 전망

- 2008년 말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으로 줄어, 2009년 8월까지의 양국간 교역량이 31억 달러에 그침에 따라 2008년보다 교역량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 (2) 품목별 수출입 동향

### □ 상호보완적인 무역관계 유지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칠레에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공산품을 수출하는 대신 동, 금속광물, 목재 등 부족한 원자재와 농산물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적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제품 및 자동차

- 2005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 칠레 최대 수출품목은 자동차였으나 2006년부터는 경유, 제트유, 등유 등 석유제품이 줄곧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에도 석유제품과 자동차가 수출품목의 약 70%를 차지하며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였지만, 2007년 7백만 달러에 불과했던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비가 2008년 770%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2009년에는 수출품목 3위에 올랐음.

〈표 V-2〉 대 칠레 주요수출품목

(단위 : 천 달러, %)

	2007	2008	2009(1~8월)
석 유 제 품	1,810,833	1,438,546	385,809
자 동 차	672,206	648,931	268,126
합 성 수 지	123,464	138,106	37,154
무 선 통 신 기 기	94,712	93,032	29,02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비	7,167	62,308	121,903
철 강 판	43,492	72,305	13,748
건 설 광 산 기 계	39,204	38,980	16,059
자 동 차 부 품	35,852	40,294	19,891
정 밀 화 학 원 료	11,282	45,186	11,604

자료: KOTIS

- 2006년 우리나라 자동차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25.7%로 전체 2위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총 판매액 6.7억 달러, 총 판매대수 66,728대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시장점유율 35%대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함.
- 승용차 부문에서는 현대 엑센트(Accent)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아의 리오(Rio)와 현대 I-10이 판매순위 10위 이내에 진입해 있음. SUV 부문에서는 현대의 투싼, 산타페, 스포티지가 압도적인 1~3위를 기록중이며, 소렌토는 9위를 차지하고 있음.('09. 6월말 현재)

#### □ 주요 수입품목은 동제품 및 동광

- 우리나라는 동제품 및 동광 수입의 약 30% 가량을 칠레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국제 동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동제품 및 동광의 수입액은 2007년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왔으나, 2008년 소폭 감소함.
- 2007년과 2008년 모두 동제품 및 동광이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입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수입품목 1위를 기록함. 2009년 8월 기준 동제품 및 동광의 수입액 비중도 87%를 기록하면서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 약 6천만 달러였던 아연광의 수입액이 2008년 118%의 증가율을 보이며 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기타석유화학제품의 경우에는 동일 기간 약 63%의 감소율을 보이며 수입액이 6천만 달러대로 감소하였음.

〈표 V-3〉

## 대 칠레 주요수입품목

(단위 : 천 달러, %)

	2007	2008	2009(1~8월)
동 제 품	1,865,858	1,712,700	1,903,084
동 광	1,273,969	1,254,562	906,141
제 지 원 료	227,031	267,076	295,995
기타 금속광물	184,222	227,055	83,025
아 연 광	59,323	129,084	95,676
육 류	120,920	90,795	81,159
곡 실 류	60,749	72,075	58,177
기타석유화학제품	176,115	64,023	55,298
정밀화학원료	39,847	55,488	37,550

자료: KOTIS

## 나. 해외직접투자 현황

## □ 교역 수준에 비해 투자규모가 작은 편

- 칠레에 대한 직접투자는 1979년 대림수산의 2.5백만 달러의 투자가 시작된 이후 1990년 LP 홀딩스의 31.1백만 달러 투자를 제외하고는 매년 1~2백만 달러 수준의 투자에 그침.
- 2003년부터는 이전보다 다소 증가한 양상을 보임. 2003년에는 LG 전자의 5백만 달러 투자 등 5.5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04년에는 대우전자 9.8백만 달러 등 11.5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짐.
- 2005~6년간은 각각 60만 달러, 4.3백만 달러의 투자에 그쳤으나,

2007년에는 LG전자의 22.5백만 달러 투자 등 26.3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짐. 2008년에는 다시 대폭 감소한 2백만 달러 상당의 투자만이 이루어졌고 2009년 상반기에는 30만 달러에 그침.

- 2009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 칠레 해외직접투자는 신규법인수 41건, 총 투자금액 1억7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이는 멕시코에 8억 달러, 페루에 7억 달러 상당을 투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편임.

〈표 V-4〉 연도별 대 칠레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천 달러)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5	5	2	3,306	5	599
2006	8	7	4,901	13	4,279
2007	12	2	30,331	9	26,295
2008	4	2	2,720	5	2,630
2009 (1~6월)	3	1	350	1	300
계	94	41	127,429	108	107,71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 대 칠레 투자는 주로 도소매업 및 광업 중심

- 우리나라의 대 칠레 해외직접투자는 도소매업 및 광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9월 기준 현재 도소매업에는 LG전자의 총 30.5백만 달러의 투자, 대우전자의 21.6백만 달러의

투자 등 전체 투자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총 54백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짐.

- 도소매업 다음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광업부문에 총 31.2백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또한 제조업 분야에도 18.7백만 달러 상당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임업분야 제조기업이 많음.
- 이밖에 어업, 건설업, 통신업 분야에도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각각 2.9백만 달러, 77만 달러, 10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표 V-5〉 업종별 대 칠레 해외직접투자 현황

(천 달러)

	도매 및 소매업	광업	제조업	농업, 어업 및 임업
신규법인수	10	1	21	3
신고금액	58,114	31,900	27,148	6,677
투자금액	54,170	31,204	18,269	2,863
	교육 서비스업	건설업	전기, 가스 사업	출판, 정보서비스업
신규법인수	1	3	1	1
신고금액	2,050	1,075	300	1,785
투자금액	2,050	775	300	100

주: 2009년 9월 말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 대우전자, LG 전자, 이건, 신광 등이 주요 상위 투자기업

- 대우전자는 한/칠레 FTA에 따른 가전시장 경쟁력 확보로 대우전자 시절 철수한 칠레 시장 재진입을 위해 2004년 DEC Chile S.A.를 설립함.



- TV,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일반가전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설립 후 연평균 20%가 넘는 매출 성장을 지속하여 2007년에는 26%의 성장을 이룸.
- (주)이건산업은 1993년 칠레에 현지 법인인 이건 라우타로를 설립하고 2000년 합판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시켜 2001년 7백만 달러에 불과하던 매출이 2007년에는 3천만 달러로 급증하여 성공적인 투자사례로 손꼽히고 있음.

〈표 V-6〉 기업별 대 칠레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달러)

현지법인명	법인수	신고액	투자액
LP(JERSEY) Holdings Company Limited	1	31.9	31.2
LG Electronics INC. Chile Limitada	1	32.6	30.5
DEC Chile S.A.	1	21.6	21.6
Forestal Lautaro S.A.	1	6.8	4.5
Shin Gwang Forestal Chile S.A.	1	5.3	3.2
Daelim Fishery Co.	1	2.5	2.5

주 : 2008년 6월 말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참고 V-1】 이건 칠레 법인 ‘이건 라우타로’ 진출 사례**

- 1993~1996년 : 칠레 현지 베니어 사업 진출, 본사 원자재 공급 시작
- 1998년 : 한국 IMF 이후 제3국으로 수출 전환
- 2000~06년 : 합판 사업으로 발전
- 2000년 : 합판 생산 설비 투자
- 2005년 : 합판 생산 능력 월 6,500㎡로 설비 증설

- 2006년 : 합판 생산 능력 월 7,000m<sup>2</sup>로 설비 증설
- 2007년 : 합판 생산 능력 월 10,000m<sup>2</sup>로 설비 증설
  
- 1972년 목재 전문기업으로 출발한 이견산업은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1993년 칠레에 현지 법인인 이견 라우타로를 설립 하고 합판을 생산해서 한국, 일본, 유럽 및 북미 등지에 수출
  
- 이견산업의 해외법인은 칠레법인 외에 중국, 미국과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 솔로몬법인이 있으며 5개의 해외법인은 모두 이 견산업이 100% 투자한 현지법인들로서 목재 자원조달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
  
- 이견산업이 칠레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칠레가 라디에 타 소나무(Radiata Pine)의 성공적인 조림국가이기 때문임. 이 수종은 원래 미국 캘리포니아가 원산이며 뉴질랜드에서 조 립에 성공한 이래 비슷한 위도상의 칠레, 호주, 아르헨티나, 남 아프리카 등의 국가에서 주요 조림수종으로 등장함.
  
- 칠레는 1973년 피노체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림에 대한 파격 적인 지원으로 조림산업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 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목생산이 시작됨
  
- 올해로 16년째를 맞고 있는 ‘이견 라우타로’는 2001년 724만 달러(약 72억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작년(2007년)에는 3190만 달러(약 320억원)로 급증하여 현지에서도 규모 있는 기업으로 성장함.

- 칠레가 EU와 FTA를 발효시킨 이듬해인 2004년부터 이견 라우타로의 유럽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 유럽지역 수출비중이 종전 5%에서 최근 35%로 늘었고 2008년부터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현황

- 한국수출입은행의 칠레 지원규모는 대출 15억 달러, 보증 3.7억 달러 등 8.1억 달러이며, 이 중 집행은 전체 승인액의 75% 수준인 11억 달러가 이루어짐.
- 한편, 2009년 10월말 현재 진행 중인 여신누계는 5.4억 달러가 승인되었으며, 여신잔액은 2.0억 달러를 기록 중임.

〈표 V-7〉 대 칠레 금융지원 현황(2009년 10월말 기준, 총누계)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승인액	집행액	여신잔액	미집행금액
- 대출	1,508.9	1,142.4	293.5	365.8
- 수출자금	750.3	384.4	215.9	365.8
- 해투자금	18.3	17.8	0.0	0.0
- 수입자금	740.4	740.2	77.7	0
- 보증	378.9	307.4	84.1	69.0
총 계	1,887.9	1,449.8	377.6	434.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참고 V-2〉 대 중남미 금융지원 주요 프로젝트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국가	프로젝트명	관련업체	승인액	비고	자금종류
멕시코	PEMEX(Cadereyta(1차, '03))	SK건설	292	역외금융	중장기금융
			200	채무보증	
	PEMEX(Madero(2차, '99))	SK건설	200	직접대출	
			480	제작금융	
	PEMEX(Salamanca(3차, '00))	삼성ENG	30	직접대출	
			38.6	이행성보증	
	PEMEX(Tula(4차, '00))	삼성ENG	24	직접대출	
	PEMEX(Minatitlan(5차, '05))	삼성ENG	72	직접대출	
			41	채무보증	
	Manzanillo LNG 인수기지	삼성ENG	126	이행성보증	
Boleo 동광 개발사업	광진공	300	대출 및 보증		
	LS니꼬	33.1	대출		
	현대하이스코	23	대출		
해외투자 및 사업자금 지원	대우전자	16.8	-	해외투자	
	LG전자	180	-		
	오리온전기	18	-		
칠레	석탄화력발전설비 수출	포스코건설	50	역외금융	중장기금융
	해외투자 및 사업자금 지원	LG상사	12.2	-	해외투자
파나마	의료장비 및 병원차량 수출	삼성물산	12.7	직접대출	중장기금융
베네수엘라	항공기엔진 개조	삼성물산	43	제작금융	
브라질	해외투자 및 사업자금지원	LG전자	100	-	해외투자
		삼성전자	15	-	
	BMC-8광구 석유개발	SK에너지	47	대출	
아르헨티나	해외투자 및 사업자금지원	대우전자	2.7	-	
		사조사업	2.2	-	
페루	까미세아 가스전 개발	SK에너지	20	대출	해외투자
	페루 LNG 프로젝트		300	대출 및 보증	중장기금융
	페루56광구 가스전 개발		39	대출	해외투자
도미니카(공)	대중교통 현대화사업(1-2차)	현대종합상사	66	대출 및 보증	중장기금융
	관세청전산화사업	현대오토에버	23	경험차관	
과테말라	교육정보화사업	미정	23.6	경험차관	EDCF
볼리비아	고속도로교량건설	삼부토건	23	경험차관	
에콰도르	산토도밍고시 상수도확장	미정	43	경험차관	
	지방통신망 확충	삼성물산	15	경험차관	
파나마	의료보건시설 현대화	삼성물산	20	경험차관	
온두라스	치안강화사업(IDB)	Withus-G	2.5	경험차관	
	지방배전망 개선	현대ENG	6	경험차관	
	Atlantida 병원건립	삼성물산/삼미	25	경험차관	
니카라과	전력망확장	삼성물산	5.7	경험차관	
	Juigalpa 상수도확장(I)	삼성물산/한솔	17.2	경험차관	
	직업훈련사업	미정	12.6	경험차관	
	Juigalpa 상수도확장(II)	미정	15.9	경험차관	

## 2. 애로사항 및 진출 시 유의사항

### 가. 애로사항

- 칠레는 중남미의 대표적 개방경제국가로 투자에 있어서도 내외국인 동등대우와 정부 간섭의 최소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어 진출 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음.
- 택시 이용 및 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살 경우에도 영수증이 발급될 정도로 기업 활동 및 일반시민생활에 있어 조세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임. 또한 공무원 사회의 기강이 잘 확립되어 있어 부패 및 뇌물관행이 없고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 다만, 관공서의 일처리가 신중하고 신속성이 없는 편이므로 모든 절차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시작할 필요가 있음.

### 나. 진출 시 유의사항

- 투자에 있어 내국인과 차별되는 우대 제도를 특별히 실시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비전통상품, 임업, 광업 등 특정부문 투자와 수출산업,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 시 다소의 혜택이 부여되므로 사전에 각종 인센티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1970년대 중반 이후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로 국내생산품 및 수입제품 간 경쟁이 치열하며 내수시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소비패턴이 고급 및 저가시장으로 양분되어 있어 중간시장이 취약함.

- 노동자의 교육수준 및 생산성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동조합 활동도 미약한 편이나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고 노동의 질과 양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므로 노동집약형 산업 진출 시 노동수급상황 및 투자지역 선정에 유의해야 함.
- 투자허가 취득, 회사설립, 등기 등의 절차가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많으므로 투자 시 현지 전문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진출전략

#### □ 광업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 필요

- 우리나라는 칠레로부터 호주 다음으로 많은 양의 금속광물을 수입하는 등 칠레에 대한 광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특히, 동제품 및 동광에 대한 수입의 1/3 가량이 칠레로부터 이루어지는 등 의존성이 매우 높으며, 대 칠레 상품수지 적자폭의 확대도 광물자원 가격 상승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6대 전략 광종<sup>23)</sup>의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중남미 지역을 주목하고 페루, 칠레,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들과 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에 힘쓰고 있음. 특히, 동, 아연, 철광 등의 광물부존이 높은 칠레와 페루를 중점투자국으로 지정하여 협력채널의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우리기업의 대 칠레 투자는 미약한 수준임. 현재 우리기업의

23) 동, 아연, 철광, 니켈, 유연탄, 우라늄

중남미 진출은 동, 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6대 전략광종에 속하는 동의 경우 페루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광물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는 광업진흥공사도 페루 현지 사무소 개설, 마르코나 프로젝트 투자 등 페루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칠레에는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 칠레에는 2007년 유성에너지가 진출한 한 건의 투자 사례 밖에 없음.

〈표 V-8〉 대 중남미 6대 전략광종 투자사례

프로젝트명	광종	국가	현재 현황	진출연도	회사명	지분율
마뉴엘리토	동	칠 레	조 사	2007	유성에너지	55
리오블랑코	동	페 루	개 발	2007	LS니꼬	10
마르코나	동	페 루	조 사	2004	광진공, LS니꼬	30
비너스	동	페 루	조사 (휴광)	1998	파 일	51
우안까벨리카	동	페 루	조 사	2006	크레피아	80
콘데스터블	동	페 루	생 산	1997	LS니꼬	7.34

자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 반면, 칠레 내 유입된 외국인 투자의 1/3 가량을 광업부문이 차지할 정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여러 국가들의 칠레 광업부문 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짐.

〈표 V-9〉 국가별 칠레 광업 부문 투자액

(단위: 달러)

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독일	영국	노르웨이
28억 5천만	65억 8천만	54억 6천만	63백만	1억 4천만	41억	46백만

자료 : 중남미자원협력센터

- 인근 중국, 일본의 경우에도 칠레의 광물 부문에 활발한 투자를 통해 자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참고 V-3】 일본과 중국의 대칠레 광업 투자 현황

#### □ 일본

- Teco Mitsubishi사는 Escondida 동광산의 10% 지분 보유(3억 5천만 달러 투자)
- Sumitomo사는 Candelaria 동광산의 20% 지분 보유(1억 5천만 달러 투자)
- Nittesu사는 Atacama Kozan 동, 니켈 광산에 21백만 달러 투자)
- Nippon사는 Pelambres 동광산의 15% 지분(1억 6천만 달러 투자)과 Collahuasi 동광산의 12% 지분(2억 5천만 달러 투자) 보유

#### □ 중국

- 칠레동공사(Codelco)와 중국 Minmetals간에 2006년부터 15년간 매년 55,800톤의 동 공급계약을 체결
- Gaby 동광산에 중국 Minmetals가 입찰을 통하여 49%의 지분 투자에 참여 예정

〈자료 : 중남미 자원협력센터〉

- 칠레는 동을 비롯하여 리튬, 몰리브덴, 브롬, 나트륨, 요오드, 금, 은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이의 개발 및 처리가공을 위한 투자가



치가 있음.

- 또한 인프라 부족이 자원 개발의 제약으로 꼽히고 있는 페루에 비해  
항만, 항공, 통신 등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 더불어 광업관련 법 및 외국인투자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광산 개발프로젝트 수요가 많음.

〈표 V-10〉 동광산 개발 주요 프로젝트

사업명	매장량(천톤)	동함량(%)	사업규모 (백만 달러)	사업개시 연도
Fortuna de Cobre (SxEw)	470	0.31	150	2008
Gabriela Mistral (SxEw)	618	0.41	874	2008
Los Pelambers repotenc. (conc)	116	0.76	180	2008
Andacollo Sulfuro (conc)	421	0.43	312	2009
Andina Ampliacion (conc)	143	0.85	578	2009
Delta (conc)	2	1.89	300	2009
Esperanza (conc)	540	0.64	1,100	2010
Franke (SxEw)	34	0.31	130	2009
Tugal (conc)	15	1.16	30	2010
Antucoya (SxEw)	300	0.45	300	2010
Delta (SxEw)	1.23	1.60	10	2010
El Abra Lixiv. Sulfuros (SxEw)	800	0.53	350	2010
Caseroners (SxEw)	628	0.43	700	2011
Los Bronces Ampliacion (conc)	761	0.55	1,000	2011
Mansa Mina (conc)	614	1.08	404	2011
Andina (SxEw)	20	0.20	193	2012
Cerro Casale (conc)	1,114	0.26	2,300	2012
El Morro (conc)	479	0.64	1,400	2013
Los Pelambres Ampliacion (conc)	818	0.76	600	2013
Tabaco (SxEw)	2.5	0.60	100	2013
Andina Ampliacion (conc)	5,562	0.85	2,166	2014

자료: 중남미자원협력센터

- 따라서 중남미 광물 부유국인 칠레에 광물자원협력기구를 개설함으로써, 칠레와의 자원협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칠레 광물개발 관련 노하우 축적을 통해 우리기업의 원활한 칠레 광업 진출을 돕는 창구역할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함.
- 더불어 고위험·장기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자원개발투자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칠레 자원개발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광업진흥공사 등 자원개발관련 공기업의 선도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임업 가공업 진출을 통한 수출 촉진

- 넓은 시장, 풍부한 자원, 앞선 기술력은 임업산업이 발달하기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FTA를 통한 확대된 시장 및 풍부한 임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칠레는 한국의 임업 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한 국가임.
- 칠레는 천혜의 자연림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가 임야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최대 32억 달러 규모의 산림개발프로젝트(DL107)를 추진하는 등 임업은 광업에 이어 제2의 국가산업분야로 떠오르고 있음.
- 또한 칠레는 활발한 FTA 체결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 미주 지역과 더불어 EU, EFTA 등 유럽 및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48개국에서 관세 혜택을 누리는 등 방대한 시장을 확보함.
- 칠레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임업투자

매력도지수(Forest Investment Attractiveness Index)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음.

\* 임업투자매력도지수(Forest Investment Attractiveness Index) : 산업 규제, 산림자원량, 무역개방도, 사업허가 정책, 금융융자 용이도 등의 10여 항목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지수로 총점은 100점

〈표 V-11〉 임업투자매력도지수 순위

순 위	국 가	점 수
1	브 라 질	60
2	칠 레	53
3	아르헨티나	44
4	우루과이	44
5	코스타리카	41
6	멕 시 코	40
중남미 평균		53

자료 : I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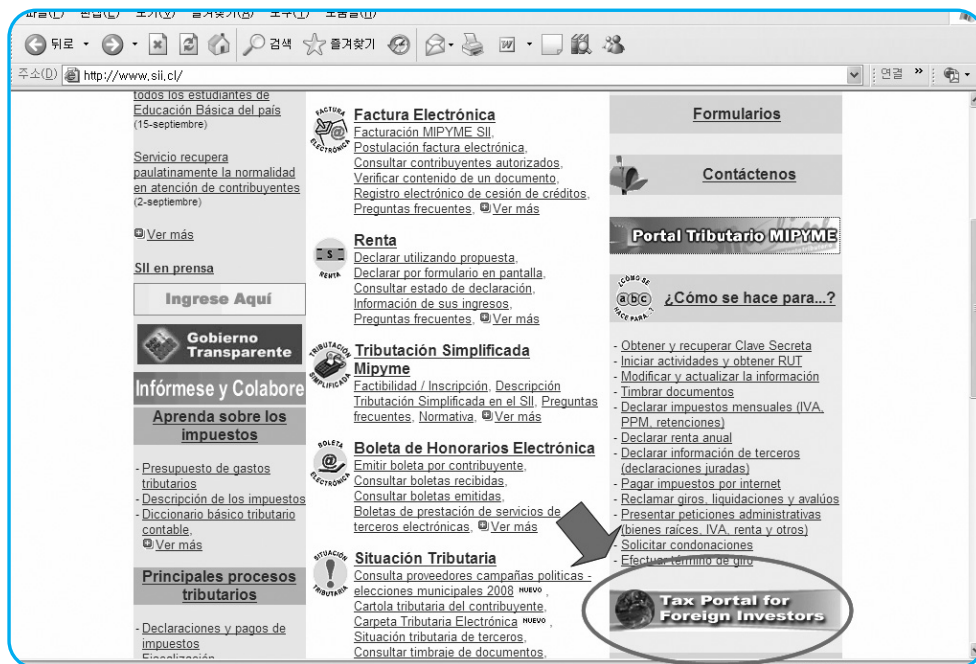
- 칠레는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로 기술력을 갖춘 한국 임업 기업들이 값싼 원자재 및 FTA에 힘입은 넓은 시장을 적극 활용하여 목재, 펄프, 종이, 합판 등의 제조 및 조립 사업 등에 투자할 가치가 있음.
- 특히, 칠레는 외국인투자자를 위해 이중과세협정, 국제이전가격<sup>26)</sup> (transfer pricing)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26) 다국적기업이 행하는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 상호간의 부품·완성품·서비스 등의 거래를 국제시장을 경유하지 않는 기업 그룹 내의 거래(기업 내 무역)로서 취급할 때, 시장가격과 달리 다국적기업의 정책에 의해 붙일 수 있는 가격.

【참고 V-4】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Tax Portal

- SII는 재무부 직속 산하기관으로 산티아고에 본부를 두고 18개의 지역사무소 운영을 통해 조세정책 강화 및 납세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함.
- SII는 포털 사이트(Tax Portal for Foreign Investors) 운영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 납세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 주요 세금 안내
  -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은 이중과세 협정, 국제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등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Tax Portal for Foreign Investors 이용법〉



- SII의 홈페이지(<http://www.sii.cl/>)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Tax Portal for Foreign Investors’ 아이콘 클릭

〈Tax Portal for Foreign Investors 첫 화면〉



- 포털 주소 : <http://www.sii.cl/portales/inversionistas/index.html>

□ 칠레 내수를 공략한 금융업 등 서비스 산업 진출

- 칠레 내수시장은 2004년 이후 4~6%의 높은 성장률 지속과 함께 꾸준히 확대되어 2007년 1,414억 달러를 기록함. 2008년에는 전년 대비 21.9% 증가한 1,72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표 V-12〉

칠레의 내수 규모

(단위 : 억달러)

	2004	2005	2006	2007	2008
내수시장규모	869	1,082	1,245	1,414	1,724

자료 : EIU

- 특히, 칠레는 GDP의 69%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등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국가임.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GDP의 16.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밖에 상업·호텔업·요식업이 GDP의 10.7%, 교육·보건 관련 서비스업이 GDP의 11.5%, 교통서비스업이 GDP의 7.2% 등을 각각 차지함.
- 현재 칠레의 서비스업 시장에는 많은 외국계 기업이 진출해 있음.
  - Brambles Industries, Sinclair Knight Merz(호주), Hatch, SNC-Lavalin(캐나다), A.P. Moller-Maersk Group(덴마크), Outokumpu Technology Oy(핀란드), Sodexo(프랑스), Thyssen Krupp, Robert Bosch(독일), Mitsui, Mitsubishi, Honda Motors, Marubeni, Panasonic, Terumo(일본), TNT Express, P&O Nedlloyd(네덜란드), 대우, LG(한국), Equipo IVI(스페인), ABB(스위스), G4 Securicor, Compass Group(영국), Tyco, Marriot, Mcdonald's, R.R. Donnelly, Equifax, Starbucks, Flour, Laureate, Sky(미국) 등
- 칠레 서비스업 중 비중이 높은 금융업 분야에서는 전체 은행 자산의 40%가 외국계 소유로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출이 활발함. 칠레의 스페인계 Santander (BSCH) 은행의 경우 칠레시장진출을 통해 세계적인 은행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칠레의 금융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음.
  - Banco de la Nacion Argentina(아르헨티나), AMP(호주),

Banco Itau, Banco do Brasil(브라질), Scotiabank(캐나다), Credit Lyonnais, Credit Agricole, UAP, Cardif, AXA(프랑스), Deutsche Bank, WestLB/Beal, Allianz(독일), Istituto San Paolo-IMI(이태리), Bank of Tokyo-Mitsubishi UFJ(일본), ABN Amro, ING, Rabobank(네덜란드), BSCH, BBVA, Mapfre(스페인), Skandia(스웨덴), Zurich, UBS AG(스위스), HSBC, Royal & Sun Alliance(영국), JP Morgan Chase, Citigroup, Merrill Lynch, Principal, MetLife, Wachovia, Credit Suisse First Boston, Liberty Chile, Inc., AIG, Ohio National Financial Service 등

- 그러나 우리나라의 칠레 내 서비스업 진출은 대우와 LG의 판매법인의 진출에 불과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진출은 전무함. 현재 국내 금융시장이 과당경쟁 등으로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발달된 신흥 시장으로서의 칠레의 가치가 큼.
-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문의 신흥 시장 개척 시 금융업 부문의 동반 진출은 필수적으로, 칠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칠레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칠레 시장정보 수집 등 지역연구 활동 강화

- 칠레는 남미의 선진국이나, 국내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우리기업들에게 생소한 지역임
- 진출사례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언어상의 문제로 인해 시장정보

입수가 힘든 상황이며, 국내 플랜트 및 건설업체 역시 이 지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제도, 관행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임.

- FTA 체결로 양국의 관계가 다방면으로 확대된 만큼 정확한 정보 입수를 통한 효율적 대응과 우리의 주도력 강화를 위해 이 지역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함.